

정부,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비대면 의료활성화 방안 발표

- 의료분야에 있어 디지털 혁신 이어질지 주목 필요 -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디지털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23. 12.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각종 제품·서비스 출시가 기대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보다 활발한 보건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최근 2024. 1. 19.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2024. 1. 30.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개인 건강정보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해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하겠다고 발표하여 팔을 걷어 부친 형세입니다.

1. 배경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으며, 다양한 의료제품·서비스가 출시되며 관련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COVID-19의 창궐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그 진행 속도는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능을 갖춘 다양한 스마트 손목시계가 출시되고, 빅테크 기업에서 의료관련 스마트폰 기능을 꾸준히 소개하는 등 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정부도 이에 반응하여 국회는 2023. 12. 20.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최근 2024. 1. 19.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 참고 - 관련 화우 뉴스레터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통과(23. 12. 27.)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817>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24. 1. 25.)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885>

정부는 2024. 1. 30.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위 민생 토론회에 참여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며 느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도 활성화를 요청한 사안에서, 정부는 계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시범 모형 발전과 관련 의료법 개정을 병행하여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개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진료정보를 전산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20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겠다 발언하였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영상정보의 공유도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 첨언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확대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공공·의료기관에 수집되어 있는 각종 건강관련 정보의 열람·저장·전송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3개 공공기관·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현황을 2024년에는 1,003개 기관으로, 그 후 2026년까지는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3. 시사점

정부의 이번 디지털 의료 혁신 활성화 정책은 곧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 보다 개인맞춤형 형태의 의료서비스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서비스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데이터의 활발한 이용은 이미 이전 뉴스레터에서 지적했듯이 민감정보 유·노출 등의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관들은 디지털 의료 도입·촉진과 함께 개인정보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제시한 비대면 진료와 건강정보 이용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대량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저장되는 공공기관과 병원 등의 DB는 한 번의 방심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어떻게 보안조치를 취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화우의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의 헬스케어팀은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의약품 광고 규제에 관해 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밖에 제약산업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고객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권동주

T. (+82) 2 6003 7572

파트너변호사

E. djkwon@yoonyang.com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김창권

T. (+82) 2 6003 7578

파트너변호사

E. ckkim@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이창우

T. (+82) 2 6003 7580

파트너변호사

E. cwlee@yoonyang.com

강석준

T. (+82) 2 6182 8505

변호사

E. kangsj@yoonyang.com